口訣 및 吏讀 漢字音 硏究의 回顧와 展望*

金武林**

要約

본고는 口訣 및 吏讀의 漢字音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課題를 제시한 것이다. 口訣 및 吏讀의 漢字音은 國語의 形態와 漢字音이 절충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國語史的인 시각과 漢字音史의 측면이라는 內外의 안목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과 안목을 바탕으로 할 때, 口訣 및 吏讀의 漢字音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도 山積해 있다.

*핵심어: 口訣, 吏讀, 漢字音, 釋讀, 音讀

---

* 이 글은 口訣學會 第40回 全國學術大會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江陵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敎授

1. 導入

口訣 및 吏讀에 사용된 漢字는 音과 訓을 이용한 국어 표기라는 점에서 借字表記로 통칭된다. 音과 訓을 이용한 借字의 원리는 口訣이나 吏讀에 공통이지만, 구체적인 개별 漢字의 용법에 있어서는 각각 고유한 용법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本稿에서는 口訣 및 吏讀에 사용된 借字의 漢字音에 대한 고찰이므로, 訓借가 아닌 音借 表記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口訣 및 吏讀의 漢字音에 대한 고찰에서 논의의 초점은 15~16세기의 중세국어 漢字音이나, 중세국어 이후 근대국어 漢字音 등으로 讀音되지 않는 것을 해명하는 데에 있다.

口訣 및 吏讀의 漢字音에 대한 고찰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올바른 讀音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古代國語 시기에 사용되었을 音借字의 音相은 해당 시기의 음운체계나 어휘 형태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많은 부분에서 중세국어 한자음이나 어휘 형태가 讀音의 準據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몇몇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口訣 및 吏讀의 한자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1)]

2. 目錄의 抽出

2.1. 音借 口訣 本字 目錄(釋/音: 釋讀 및 音讀 口訣 文獻)

1) 國語史의 시대구분은 김무림(2004)에 의하며, 漢語史의 시대구분은 일반적인 견해에 의한다.

■ 音借 口訣字 目錄은 백두현(2005), 南京蘭(2005)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佳(音, 가), 加(音, 가), 可(音, 가), 艮(釋, ㄱ/ㄱ/ㅎ), 皆(釋, ㄱ), 去(釋/音, 거), 戒(音, 겨), 古(釋/音, 고), 果(釋/音, 과), 那(音, 나), 難(音, 란), 乃(釋/音, 나), 女(音, 녀), 奴(釋/音, 노/로), 尼(釋/音, 니), 多(釋/音, 다), 代(音, 듸), 大(音, 대), 刀(釋/音, 도), 冬(釋, 들), 斗(釋/音, 두), 等(音, 듸/드/들), 羅(釋/音, 라), 良(釋/音, 아), 驢(音, 러/려), 呂(音, 려/리), 彔(音, 록), 論(音, 론), 了(音, 료/뇨), 淚(音, 러), 利(釋/音, 리), 里(音, 리), 吝(音, 린), 勹((釋/音, 마), 馬(音, 마), 麻(音, 마), 麼(音, 마), 萬(音, 만), 每(音, 마), 旀(音, 며), 面(音, 면), 毛(釋, 모), 勿(釋, 믈/므/ㅁ), 彌(釋/音, 며), 未(音, 미), 賜(釋, 시), 沙(釋/音, 사/ㅅ아), 四(音, ᄉᆞ), 士(音, ᄉᆞ), 舍(音, 샤), 三(音, 삼), 上(音, 뎨/자), 生(音, 싱), 書(音, 셔), 西(音, 셔/서), 所(音, 소), 小(音, 쇼), 孫(音, 손), 尸(釋, ㄹ), 示(釋/音, 시), 是(音, 시), 時(音, 시), 申(音, 신), 失(音, 실), 兒(音, ᄉᆞ), 阿(音, 아), 哀(音, 이/의), 厓(音, 애), 也(釋/音, 야), 於(音, 어), 言(音, 언), 如(釋/音, 다), 與(釋, 여), 汝(音, 녀), 汝(音, 러), 亦(釋/音, 여/이), 曳(音, 예), 五(釋/音, 오), 午(音, 오), 玉(音, 옥), 臥(音, 와), 要(音, 요), 于(釋, 우), 又(釋, 우), 隱(釋/音, ㄴ), 殷(音, 언), 乙(釋/音, ㄹ), 音((釋, ㅁ), 邑(釋/音, ㅂ), 應(音, 이/ㅇ), 矣(釋/音, 듸/의), 衣(音, 의), 伊(音, 이), 已(音, 이), 弋(釋, 익), 印(音, 인), 子(釋/音, ᄌᆞ), 底(音, 뎌/저), 宁(音, 뎌/저), 田(音, 뎬/뎌/저), 丁((釋/音, 뎌/뎡), 第(釋, 뎨), 齊(釋/音, 져), 刁(音, 도), 止(釋, 디), 支(釋, 히), 只(釋/音, ㄱ/기), 知(釋/音, 디), 地(音, 디), 之(音, 지), 叱(釋/音, ㅅ), 快(音, 쾌), 他(音, 타), 太(音, 대), 土(音, 토), 下(釋/音, 하), 何(音, 하), 兮(釋/音, 히), 乎(釋/音, 호), 戶(音, 호)

2.2. 音借 吏讀字 目錄(麗/鮮: 高麗 및 朝鮮 文獻)

■ 音借 吏讀字 目錄은 李丞宰(1992), 朴盛鍾(1996), 南豊鉉(2000), 장세경(2001), 배대온(2003)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可(麗/鮮, 가), 佳(鮮, 가), 價(鮮, 가), 揀(鮮, 간), 干(鮮, 간/한), 看(鮮, 간), 簡(鮮 간), 艱(鮮, 간), 甲(鮮, 갑), 强(鮮, 강), 介(鮮, 개), 開(鮮, 개), 箇(鮮, 고), 去(麗/鮮, 거), 堅(鮮, 견), 遣(麗/鮮, 고), 結(鮮, 멱/져), 啓(鮮, 계), 姑(鮮, 고), 庫(鮮, 고), 苦(鮮, 고), 告(鮮, 고), 高(鮮, 고), 故(鮮, 고), 庫(麗/鮮, 곳), 昆(鮮, 곤), 工(鮮, 공), 公(鮮, 공), 功(鮮, 공), 課(鮮, 과), 過(鮮, 과), 果(鮮, 과/와), 關(鮮, 관), 軍(鮮, 군), 近/斤(鮮, 근), 今(麗/鮮, 금/곰), 給(鮮, 급), 記(麗/鮮, 긔), 己(鮮, 기), 喫(鮮, 끽), 那(鮮, 나), 納(鮮, 납), 內(麗/鮮, 느, 內는 卧와 互用), 乃(麗/鮮, 나), 尼(鮮, 니), 但(鮮, 든), 段(麗/鮮, 든/쓴), 當(鮮, 당), 大(鮮, 대), 貸(鮮, 대), 德(鮮, 더/덕), 度(鮮, 더), 道(鮮, 도), 到(鮮, 도), 都(鮮, 도), 獨(鮮, 독), 冬(麗/鮮, 돌/들), 得(鮮, 득), 等(鮮, 드/든/등), 略(鮮, 략), 良(麗/鮮, 란/랑/아/어, '아/어'는 훈차, 알良, 광주천자문 8), 鍊(鮮, 련), 了(鮮, 루), 了(丫)(鮮, 아), 立(鮮, 닙/입), 磨(鮮, 마), 滿(鮮, 만), 每(鮮, 믜/마), 旀/彌(麗/鮮, 며), 毛(麗/鮮, 모), 目(鮮, 목), 文(麗/鮮, 문), 物(鮮, 물), 未(鮮, 미), 味(麗/鮮, 미/맛), 密(鮮, 밀), 反(鮮, 볻/번/반), 白(鮮, 발), 飜(鮮, 번), 犯(鮮, 버), 別(鮮, 별), 付(鮮, 부), 分(麗/鮮, 분), 沙(麗/鮮, 사/사/샤), 使(鮮, 사), 賜(麗/鮮, 시), 史(鮮, 싀/이), 山(鮮, 산), 鈒(鮮, 삽), 商(鮮, 상), 上(麗/鮮, 자/즈/차/상), 生(鮮, 생), 徐(鮮, 서), 鼠(鮮, 셔/서), 夕(鮮, 사), 先(鮮, 선), 省(鮮, 성), 細(麗/鮮, 셰/세), 踈(鮮, 소), 所(鮮, 소), 召(鮮, 죠, 召忽島죠콜셤/龍飛御天歌), 數(鮮, 수), 須(鮮, 수), 手(鮮, 수), 是(麗/鮮, 시), 式(麗/鮮, 식), 實(麗/鮮, 실), 失(鮮, 실), 甚(鮮, 심), 阿(鮮, 아), 安(鮮, 아), 案(鮮, 안), 庵(鮮, 음), 也(鮮, 다/야, '다'는 상고음), 耶(鮮, 야), 樣(鮮, 양), 奄(鮮, 엄), 如(麗/鮮, 어/여), 女(鮮, 여), 役(鮮, 격), 驛(麗/鮮,

녁), 亦(麗/鮮, 여/이/이여/히, 北方音), 葉(鮮, 엽), 于(麗/鮮, 오/우/욱), 委(鮮, 위), 爲(鮮, 위/우), 喩(麗/鮮, 디/지), 有(鮮, 유), 隱(鮮, 은/ㄴ), 乙(麗/鮮, 놀/늘/올/을/ㄹ), 音(麗/鮮, 음/옴/ㅁ), 應(鮮, ㅇ/응), 矣(麗/鮮, 의/읻/이/ᄃᆡ), 伊(鮮, 이/리), 移(鮮, 이), 已(鮮, 이), 而(鮮, 이), 易(鮮, 이), 頃(鮮, 탈), 弋(麗/鮮, 익), 入(鮮, 입), 仔(麗/鮮, ᄌᆞ/자), 字(鮮, 자), 子(鮮, 자), 掌(鮮, 장), 丈(鮮, 장), 長(鮮, 장), 狀(鮮, 장), 哉(鮮, 제), 的(鮮, 뎍), 全(麗/鮮, 전/젼), 專(鮮, 전), 傳(鮮, 전), 詮(鮮, 젼/전), 轉(鮮, 전), 錢(鮮, 전), 折(鮮, 절), 丁(鮮, 뎌/뎡/정), 定(鮮, 정), 第(麗/鮮, 뎨), 題(麗/鮮, 뎨/졔/져), 齊(麗/鮮, 졔/졔), 條(鮮, 조), 造(鮮, 조), 終(鮮, 종), 佐(鮮, 자), 坐(鮮, 좌), 座(鮮, 좌), 周(鮮, 주/쥬/두), 重(鮮, 중), 只(麗/鮮, ㄱ/기), 知(麗/鮮, 디/지), 之(鮮, 져), 志(鮮, 지), 至(鮮, 지), 旨(鮮, 지), 支(鮮, 지), 持(鮮, 지), 紙(鮮, 지), 直(鮮, 짇/지기), 陳(鮮, 진), 鎭(鮮, 진), 叱(麗/鮮, ㅅ), 徵(鮮, 징), 次(麗/鮮, ᄎᆞ/차), 差(鮮, 차), 錯(鮮, 착), 參(鮮, 참), 隻(鮮, 척), 初(麗/鮮, 초), 出(鮮, 출), 致(鮮, 치), 則(鮮, 즉), 稱(鮮, 칭), 筒(鮮, 동), 投(麗/鮮, 도/두), 波(鮮, 바), 必(鮮, 빌), 下(麗/鮮, 하), 合(鮮, 홉), 項(鮮, 항), 該(鮮, 히), 行(鮮, 행), 向(鮮, 안/향), 現(鮮, 현), 兮(麗/鮮, 이/히), 乎(麗/鮮, 호/오), 還(鮮, 환), 活(鮮, 괄), 爻(麗/鮮, 효/쇼)

3. 硏究의 回顧

3.1. 口訣 音借字에 대한 硏究

■ 安秉禧(1977)는 中世國語의 口訣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讀音에 대한 논의는 'ᄃᆞᆫ/든/ᄃᆞ'로 읽는 '等'은 '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音節 末音에서 'n'과 'ŋ'의 混同에 의한 것(99), '져'로 읽는 '齊'는 원래의 音 '졔'에서 'j'가 무시된 것(110) 등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 南豊鉉(1999)은 論文集이지만 논의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종합적인 口訣 연구서로 다룰 수 있다. 讀音에 대한 주요 논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안'으로 읽는 '良'과 '든'으로 읽는 '等'은 기원적으로 訓借에서 온 것이다(85).
- '듸'로 읽는 '矣'는 訓借字이다(91).
- 口訣字의 音을 보면 한자의 음이나 훈에서 音節 末音을 탈락시키어 사용하는 예가 있다. '亦(역)'이 '여', '飛'의 훈이 '놀'인데 'ᄂᆞ', '臥'의 훈이 '눕'인데 '누', '火'의 훈이 '블'인데 'ᄇᆞᆯ/ᄇᆞᄇᆞ' 등이다.
- 특이한 경우로는 '令(령)'이 '려'를 거쳐 '리'의 표기에 이르고, '只(기)'의 모음을 탈락시켜 'ㄱ'을 표기하고, '叱(즐)'이 'ᄌᆞ'를 거쳐 'ㅅ'의 표기에 이른 것을 들 수 있다(210).
- 그러나 '尸'가 'ㄹ'을 표기한 것이나, '冬'이 'ᄃᆞᆯ'을 표기한 것은 그 내력을 설명하기 어렵다(211).

■ 南豊鉉(2008)에서는 口訣字 '攴(支)'의 機能이 구결자 '矣(知)'에 이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여, '支'의 讀音을 'ᄃᆞ(止)'와 마찬가지로 '디'로 이해하면서, '디'로 읽는 '支'의 讀音은 傳統 漢字音과는 맥락을 짓기 어려운 한자음으로 파악하였다.

■ 백두현(2005: 133~155)에서는 '支'의 가능한 讀音인 '기, 히, 디' 가운데 '히'를 선택하면서, 高麗 時代 漢字音에 의한 音借字로 이해하였으나, 漢字音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金武林(1999)는 高麗 時代 문헌에 사용된 口訣 漢字音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이다. 모두 89字의 音借字 가운데 논의가 필요한 46字에 대해 그 讀音의 유래를 살핀 것으로서, 口訣 漢字音을 전반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의이다. 論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釋讀 口訣의 音價는 朝鮮의 漢字音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釋讀 口訣의 漢字音은 上古音的 기반을 가졌거나, 또는 朝鮮 漢字音의 基層보다 이른 시기의 漢字音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예: 冬, 只, 彌, 賜, 止, 齊, 乃
- 釋讀 口訣의 漢字音은 朝鮮 漢字音과 기본적으로 區別된다고 할 수 있으며, 音讀 口訣은 朝鮮 漢字音과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체 존대 '시'의 표기에는 釋讀 文獻의 구결자 '賜(ㅎ)'가 최초로 쓰였으나, 이후의 문헌에서 '示(ㅋ)'나 '時(ㅐ)'로 교체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漢字音이 朝鮮 漢字音式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音讀 口訣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口訣字는 中古音 이후 近古音 정도의 기반을 가진 漢字音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 兒, 四, 士
- 古代國語의 借字 表記의 관습을 잇는 것으로 이해되는 특수한 讀音의 吏讀式 口訣字가 있다. 예: 冬, 矣, 上, 亦
- 韻尾만을 借音한 경우의 漢字音은 韻尾를 제외한 부분이 '으'이기 때문에 매개 모음으로서 '으'의 위치는 역사성에 있어서 釋讀과 音讀 文獻에서 동일하다. 예: 隱, 乙, 音, 邑

▪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高麗 時代의 口訣 漢字音은 釋讀이나 音讀 文獻을 막론하고 크게는 漢語 中古音과의 관련성을 공통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中古音을 기반으로 하여 釋讀 구결의 한자음이 上古音的 성격을 지니고, 音讀 구결의 한자음이 近古音的 성격을 지녔다는 차이점은 釋讀 口訣과 音讀 口訣 한자음의 특징으로 삼을 만한 것이다. 특히 口訣 漢字音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朝鮮 漢字音은 고려 시대 초기까지도 조정 국면에 있었다고 하겠는데, 釋讀 文獻의 口訣은 조정되기 이전의 한자음 체계에 기반을 두었고, 音讀 文獻의 口訣은 조정 이후의 새로운 체계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겠다. 고려 시대 초기의 조정

시기를 통하여 上古音的 성격을 지닌 漢字音은 부분적으로 中古音이나 近古音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漢字音으로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朝鮮 漢字音이 부분적으로 上古音 기반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에 교체 대상이 된 漢字音은 새로운 기반을 가진 漢字音과 衝突하여 자리를 내준 漢字音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2. 吏讀 音借字에 대한 硏究

■ 小倉進平(1929)은 鄕歌 및 吏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去等/거든'에서 '든'으로 읽는 '等'은 高句麗 地名 표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終聲 'ŋ'와 'n'의 통용에 의한 것(307), '디(지)'로 읽는 '喩'는 일종의 比喩的 用法에 의한 것(98) 등으로 그 讀音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 부분이 있다.

■ 홍순탁(1974)은 吏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이다. '이'로 읽는 경우의 '亦'은 『龍飛御天歌』(7-22)의 '甫亦莫兀兒住 ᄑᆡ모월쥬'를 근거로 하여 蒙古韻의 영향을 받은 音으로 풀이하였는데(46), 이것은 '이'를 漢語 近代音의 영향으로 본 것이다. '只'는 '기, 디/지'에 두루 쓰이는 借字인데, 이것은 原音이나 通音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기, 디/지'의 機能의 통용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62~64). '자'로 읽는 '上'은 『三國史記』(37)에 '佐魯縣本上老'의 異文을 인용하면서 '자'가 '上'의 羅代音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爻周'를 '효주'가 아닌 '쇼쥬'로 읽는 것은 구개음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109), 이에 의하면 '爻'의 音 '쇼'는 후대의 독법이 된다.

■ 金根洙(1980: 141~207)는 吏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吏讀의 原音이라는 주제에서는 近世의 文獻에 나타난 讀音이 후대의 변화된 音인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原音을 되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原音의 기준을 漢字音에 두지 않고 中世國語의 語形에 두었으므

로, 근본적인 原音을 추구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乙'은 近世의 吏讀 文獻에 '을, 를, 늘' 등으로 읽으나, 中世國語의 變異 形態에 따라 '을, 올, 를, 롤, 늘, 놀, 으, ᄋᆞ' 등으로 구별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白'의 경우도 '발'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으나, '숩, 숩'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 朴喜淑(1984)은 大明律直解의 吏讀에 대한 硏究이다. 吏讀語 '上下'의 讀音과 관련하여 '上'을 '자'로 읽는 것은 '上'의 古音임을 말하였다. 특히 高句麗 地名에서 '上忽'의 異文으로 '車忽'이 있는 것을 傍證으로 삼았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對格 '올/을'의 '乙'의 中聲에 대해서는 古音에서 'ɨ'아닌 'i'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이 특이하다. '巴只'의 讀音이 '두록, 도로, 도로기' 등인 것은 중국의 지명 기록인 '三巴記'를 인용하면서 '巴 '를 '曲, 廻'의 뜻인 'tol'로 읽게 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科科以'의 독음이 '차차/ᄎᆞᄎᆞ로'인 것은 '條目條目'의 '條'의 古音이 '차'와 유사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不喩'의 독음이 '안디'인 것은 古音에서 '喩'의 初聲이 'd'인 것에 근거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칼그렌(Karlgren)의 再構音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正鵠을 얻었다고 생각된다.

■ 南豊鉉(2000: 122~126)에서는 吏讀文의 人名을 다루면서 '巴, 寶, 老, 路, 史, 斯' 등과 같은 音借字의 漢字音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漢語 中古音과 中世國語 語形을 기반으로 讀音을 추정하였다. 역시 南豊鉉(2000: 164~165)에서는 인명 접미사로 쓰인 '知, 之, 次' 등에 대해 간략한 견해를 피력한 것인데, 中古音과 上古音 중에서 어떤 基層을 선택해도 舌音과 齒音 사이에서 聲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난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論者의 관점대로 방언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南豊鉉(2000: 380)에서는 '兮'의 吏讀音 '히'가 원래의 '혜'에서 변화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여기에는 再考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吏讀의 讀音이 朝鮮 漢字音과 차이가 있을 경

우에는 朝鮮 漢字音보다 古音으로 간주하게 되는 논의가 설득력에서 우선하기 때문이다. 南豊鉉(2000: 422~434)에서는 新羅 時代의 吏讀字 '哉'를 논의하면서, 관련 형태인 '之, 齊, 制' 등도 함께 다루었다. 여기에서 論者는 '之'를 訓讀인 '-다'로 풀었고, '哉'는 '지'로, '齊, 制'는 '졔'로 읽어 中古音을 기반으로 한 朝鮮 漢字音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 南豊鉉(2005)에서는 古代 吏讀文 '之'는 '-다'로 읽힐 것이므로, 後代의 '如/-다'에 이어지며, '哉/지, 制/졔, 齊/졔' 등과는 語形과 機能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 장세경(2001)은 吏讀 辭典이다. 표제어 풀이에서 讀音에 관련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內'의 讀音으로 '안, 닉/뇌'를 제시하면서 '뇌'를 古音이라고 하였으나, 古音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43).
- '彌'는 본래 '미'이나 그와 비슷한 소리 '며'를 적음에 쓰였다(61).
- '良'의 다양한 讀音인 '량, 란, 랑, 라, 랴, 양, 야, 아' 등은 모두 본래의 漢字音인 '량'에서 온 것이고, '어'로 읽는 것은 새김인 '어질'에서 온 것이며, '애, 에'로 읽는 것은 '良中(아히)'가 줄어서 된 것이다(161).

■ 배대온(2003)은 吏讀 辭典이다. '머리말'에서 吏讀의 讀音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은 5 세기 무렵의 초기 이두와 후대의 이두는 비록 같은 漢字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음가와 기능의 변화가 있었을 것임을 전제로 한 염려이다. 전체적으로 中世國語의 形態와 漢字音에 의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관련 논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고만'으로 읽는 '箇滿'에서 '箇'의 中古音은 'ka/ko'이므로 참고할 수 있다(36).
- '乃'는 中古音이 'nai'인데 'i'를 탈락시킨 音이며, '那'의 후신이다

(38).

- '等'의 기층음은 'ᄃᆞ'이다(39). '冬'의 독음이 '돌'인 것은 일단 上古音의 반영으로 볼 수 있으며, 韻尾에서 '-əng〉 -ə〉 -ər'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97).
- '며'로 읽는 '旀'는 '彌'의 俗字이며, '彌'의 上古音이 반영된 것이다(125).
- '받자'로 읽는 '捧上'에서 '上'의 讀音이 '자'는 音借된 것이며, '上'의 聲母 '狀'이 한국 한자음으로 반영될 때 'ㅅ, ㅈ, ㅊ' 등이 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149).
- '시'로 읽는 '賜'의 반절은 '斯義切'로서 '義'는 眞韻으로 止攝이다. 止攝의 음가는 'i'로 잡을 수 있다(169).
- '다'로 읽는 '也'는 音借로 上古音을 반영한 것이다(234).
- '이'로 읽는 '亦(已)'은 중국 북방음을 반영한 것이다(246).
- '디'로 읽는 '喩'는 音借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上古音이나 中古音의 어느 쪽으로도 만족스럽게 대응되지 않는다(343).
- '哉'는 '제' 정도로 읽을 수 있으며, 종결어미 '之'의 음가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382).
- '제/졔'로 읽는 '齊'는 中古音을 반영한 것이다(401).
- 제주도 방언의 서술형 종결어미 '저'는 '之/져'의 잔형으로 보이며, 이의 개신형이 '哉/제, 齊/제(졔)'인데, 경상도 방언의 '제, 제(이)/데, 데(이)' 등에 이어진 듯하다(402).
- '져'로 읽을 수 있는 '之'가 10세기 이후 종결 어미로 쓰이지 않게 된 것은 音價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411).
- 'ㅅ'으로 읽는 '叱'은 '혀차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訓借라고 했는데(421), 기존의 音借라는 견해에 비추어 異色的인 착상이다.
- '빌우'로 읽는 '必于'에서 '必'의 音이 '빌'인 것은 中古音의 반영이다(439).

■ 李丞宰(1992)는 高麗 時代의 吏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용법을 밝히면서 讀音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한자음과 관련된 논의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李丞宰(1992: 72~73, 184)에서는 '喩, 等, 矣'의 讀音이 각각 '디, 듣, 디'인 것이 본디의 漢字音과는 관계가 없으며, 아울러 새김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여 正體 不明의 讀音으로 처리하였고, '고, 곰/금'으로 읽는 '遣, 尒'이 鼻音인 종성을 갖는 것이 종성 삭제의 어떤 특징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 朴盛鍾(1996)은 朝鮮 初期 吏讀에 대한 종합적 연구이다. '발괄'로 읽히는 '白活'에 대해 '白'은 音讀字로, '活'은 音假字라고 하였지만 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뎨김'으로 읽는 '題音'에서 '題'는 원래 '*뎍임'을 표기하기 위한 것인데, 첫음절에 音이 비슷한 '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題'의 漢字音과는 직접 연관을 짓지 않았다.

■ 權仁瀚(2000ㄱ,ㄴ)에서는 '두'로 읽는 '投', '듣/든'으로 읽는 '等', '맛'으로 읽는 '味' 등에 대하여 漢字音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投'는 聲母가 定母로서 宋代 이후에 유기음화하지만, '投'가 사용된 11세기에는 그 음가가 '頭'와 마찬가지로 '두'였을 것이라는 것, '等'은 古代의 漢字音에서 梗·曾攝字와 山(先韻만 해당)·臻攝字가 同音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듣/든'의 讀音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味'의 讀音을 音注 '亡曷反'을 토대로 하여 '말[言]'로 추정하면서, 이것은 上古音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이며, 후대에 '맗〉 맛'에 의한 독법의 변화가 있었을 것 등으로 추정하였다.

3.3. 其他의 關聯된 硏究

■ 梁柱東(1965)은 鄕歌에 대한 硏究書이다. 借字에 대한 연구는 漢字音에 의한 外的 접근이 아니라, 國語의 시각에서 살핀 內的 방향의 논의가 중심이 된 것이 특징이다. 독음에 대한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고'로 읽는 略音借 '遣'은 '(原始形)겨오〉 고'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 '둘'로 읽는 '冬'은 '等'의 戱書
- 다양한 讀法으로 나타나는 '良'은 '라/리/ㄹ(略音借), 란(轉音借), 아/어/애(通音借)' 등으로 처리된다.
- '미/ᄆᆡ'로 읽는 '未'는 반절 '無沸切'과 '莫拜切'을 근거로 두 가지 音價로 해석된다.
- 'ㄹ'로 읽는 '尸'는 本字와는 상관이 없는 '羅, 良, 盧' 따위의 省文에서 온 것이다.
- '다/다이/ᄃᆞᆺ' 등으로 읽는 '如'는 義訓讀이거나 義訓借이다.
- '이'로 읽는 '亦'은 略音借, '矣'는 音借 '의'에 해당하지만 'ᄃᆡ'로 읽는 경우는 '冬矣(反切 ᄃᆡ)'에서 '冬'이 생략된 것이다.
- 'ㅅ' 표기에 쓰인 '叱'은 古音 '싣/짇'에 의한 略音借일 것이다.
- '빌'로 읽는 '必'은 古音에서 온 것이다.

■ 兪昌均(1996: 80~85)에서는 그동안 讀音의 규명에 논의가 어려웠던 鄕札의 借字를 대상으로 上古 漢字音을 토대로 外的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 '라'로 읽는 '良'은 上古音 'lang'에서 온 것이다.
- 'ㄹ'로 읽는 '尸'는 上古音의 복합 성모 'sl-'에서 온 것이다.
- '오'로 읽는 '乎'는 上古의 聲母 'g-'가 삭제된 魏晋六朝時代의 音에서 온 것이다.
- '다'로 읽는 '如'는 六朝音을 'ndjag'로 가정하여 初頭 子音 'n'이 삭제된 音에서 온 것이다.
- '라'로 읽는 '也'는 上古의 'djăg'에서 'd'의 'r'化로부터 온 것이다.
- '둘'로 읽는 '等'은 上古音 'ded'가 변한 'der'에서 온 것이다.
- 'gi'로 읽는 '支'나 'ki'로 읽는 '只'도 역시 上古音에서 온 것이다.
- '듸/ᄃᆡ'로 읽는 '矣'는 說文에서 '以'를 聲符한다는 것을 참조하여

上古音을 'djəg'으로 재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변한 'djəi'에서 온 것이다.

- '라'로 읽는 '耶'는 上古音 'djăg'이 변한 'ŋă'에서 온 것이다.
- 'ᄂᆞ(노)'로 읽는 '內'도 상고음에서 온 것이다.
- 'ᄂᆞ'로 읽는 '乃'도 상고음에서 온 것이다.
- 흔히 '디'로 읽는 '喩'는 원래의 독음이 '디'가 아니라 'ᄃᆞ/ᄃᆞᆯ〉 디'에 의한 것이며, 역시 '喩'의 상고음으로 추정되는 'djəg'에서 온 것이다.

■ 김완진(1996: 399~423)은 전승 漢字音이나 새김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특이한 音讀字 및 訓讀字에 대한 논의이다. 'ㄹ'로 읽는 '尸'는 '乙'에서 온 것, 'ㅅ'으로 읽는 '叱'은 '時'에서 온 것, '기'로 읽는 '只'는 '其'에서 온 것, '히'로 읽는 '支'는 '希'에서 온 것, '금/곰'으로 읽는 '尒'는 '今'에서 온 것, '마'로 읽는 國字 '𠯿'는 '馬'에서 온 것 등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물론 漢字音 자체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訓讀字로 이해되는 借字 가운데 '돌'로 읽는 '珍'은 '期'에서 온 것, 'ᄃᆞᆯ'로 읽는 '冬'은 '月'에서 온 것, 'ᄅᆞᆯ/ᄂᆞᆯ'로 읽는 '於'는 대격의 용법에서 온 것, 'ᄃᆡ'로 읽는 '矣'는 '句末起下之詞'의 용법에서 온 것 등으로 해석하여 흥미로운 示唆를 제공하였다.

■ 南豊鉉(2009: 300~317)에서는 借字表記의 讀音이 본래의 音(주로 전통 한자음 기준, '喩'는 예외)에서 單母音化한 경우가 많음에 착안한 논의이다. '령〉 리(令), 려〉 리(呂), 례(례)〉 리(禮), 혀(혜)〉 히(兮), 역〉 익(이기)〉 이(亦), 듀〉 디(喩), 뉴〉 누(儒)' 등이 이러한 논의에서 다루어진 단모음화한 예들이다. 여기에는 기준이 되는 漢字音의 設定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이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金裕範(1996)에서는 借字 表記에서 'ㄹ'과 'ㅅ'의 二重的 音價를 갖는 '尸'는 漢語史에서 '尸'의 聲母가 上古의 'l'에서 中古의 's'로 변화

한 데에 연유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前述한 兪昌均(1996)의 견해와 유사한 점이 있다.

■ 권인한(2002)에서는 新羅 國號의 異表記를 대상으로 '徐, 斯, 尸, 志, 新'의 同音性과 '那, 羅, 耶, 盧, 良'의 同音性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라의 국호의 음상이 *sina에서 *sira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前者의 同音性에 대한 논의에서는 聲母 및 韻母의 측면에서 唐五代 西北方音의 영향으로, 後者의 同音性에 대해서는 上古音의 영향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古代國語의 漢字音에 대한 다양한 基層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흥미를 준다.

■ 金武林(2003)은 古代國語의 表記(固有名詞, 吏讀, 鄕札)에 쓰인 '內'의 音價를 모색한 것으로, 古代國語에서 '內'의 音價를 '*nu'로 再構하면서, 朝鮮 漢字音의 'ㄴㅣ'는 'nu'로부터 변화한 것이 아니라 'nu'를 교체한 새로운 音이라고 하였다.

■ 오세준(2006)에서는 上古音의 再構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토대로 하여 '尸'의 上古音을 'hljid'나 'hli'로 재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再構音은 借字 表記에 드러나는 '尸'의 音價 'ㄹ'에 부합될 것이라고 하였다.

4. 評價와 展望

4.1. 全般的인 見解

口訣 및 吏讀의 音借에 의한 讀音이 本字의 漢字音에서 약간 벗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讀音과 漢字音이 그대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즉 口訣 및 吏讀의 讀音은 당시의 國語의 形態가 기준이므로, 해당 形態에 꼭 맞는 漢字音이 없을 경우에는 變異의 수단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讀音에 대한 논의와 漢字音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하겠으나, 音借字를 다룬 本稿에서는 讀音과 漢字音의 관계가 밀접하여 엄밀한 구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口訣과 吏讀의 用字에는 音借字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同字가 50%에 이르지 못하므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漢字音의 측면에서 有意的 차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 부분에는 특히 吏讀字의 讀音이 후대의 한자음으로 조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口訣 및 吏讀의 漢字音에 대한 논의는 주로 讀音에 있어서 15세기 朝鮮 漢字音과 이를 바탕으로 한 變異音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讀音을 확립하는 것이지만, 讀音의 설정에 중세국어의 편견을 벗어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讀音에 대한 규명에서 吏讀에 대한 논의는 口訣의 그것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吏讀의 사용이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고, 넓은 의미의 吏讀는 借字 表記의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된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口訣의 漢字音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疏略하나마 있는 반면에 吏讀의 漢字音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아마도 口訣 漢字音에 대한 연구는 釋讀과 音讀 文獻의 用字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그 時代性도 비교적 명확한 편이어서 共時的인 논의가 가능했던 데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깊은 吏讀의 用字와 讀音이 어떤 시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지 않았고, 주로 中世國語의 形態와 漢字音에 의한 讀音으로 정착되어 그 歷史性을 담보하지 못한 까닭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借字 表記의 漢字音에 대한 논의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은 上古音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다. 金武林(1999)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口訣 한자음이 中古音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여 釋讀 구결의 한자음이 上古音的 性格을 지니고, 音讀 구결의 한자음이 近古音的 性格을 지녔다

고 하는 요점을 얻었던 것은 口訣 漢字音을 전체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兪昌均(1996)의 논의는 지나치게 上古音에 依存했다고 생각된다.

綜合的인 視野는 항상 具體的인 사항의 천착에 의해 이루어진다. 權仁瀚(2000)과 金武林(2003)은 개별 用字에 대한 讀音을 國語 形態와 漢字音이라는 內外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다룬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기존에 통용되던 音借字의 讀音이란 것이 새롭게 조정되어 해당 문헌 시기(주로 古代國語)의 讀音으로 재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論議에는 자료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앞으로의 성과는 이러한 성격의 硏究에 기댈 수밖에 없다.

4.2. 細部的인 見解

■ 口訣 및 吏讀에서 音借인지 아니면 訓借인지 결정되지 않은 '等(ᄃᆞ/드/ᄃᆞᆯ, ᄃᆞ/든/등), 如(다), 矣(ᄃᆡ), 尒(금/곰)' 등과 같은 경우가 있으며, 讀音이 확실하지 않은 '干(간/한), 支(히, 지), 也(다/야)' 등도 있다. '矣'의 聲母는 上古音은 연구개 마찰음(ɣ)으로 再構되고, '如'는 비음(n)으로 再構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矣(ᄃᆡ), 如(다)'가 音借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논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에 '也(다)'는 上古音에서 聲母가 설음(d)으로 再構되는 것이 우세하므로 音借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借字 體系와 더불어 균형 있는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다.

■ '上'의 讀音 '자'에 대해서는 上古音에 기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견해이다. 漢語史에서 '上'의 음가는 '(上古)zĭaŋ/źjang/dʰjang/djang 〉 (中古)zĭaŋ 〉 (近代)ʂiaŋ 〉 (現代)ʂaŋ'과 같은 推移를 겪었으므로, '上'의 古代國語 漢字音으로는 '장'이나 '상'이 되는 것이 무방하다. '장, 상'의

기층음으로는 굳이 上古音에 소급하지 않고 中古音에서 찾더라도 문제가 없다. 다만 朝鮮 漢字音의 聲母에 대한 반영에서 禪母(ʑ)는 'ㅅ'으로 나타나는 것이 通例임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朝鮮의 漢字音이 대체로 中古音 後期에 해당하므로, 古代國語의 漢字音은 오히려 中古音 前期에서 찾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釋讀 口訣 文獻의 漢字音에 대한 金武林(1999)의 종합에서도 基層에 대한 견해는 中古音 前期가 우세하다는 것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上'의 古代國語 漢字音을 '장'으로 재구할 것인지, 아니면 '자'로 재구할 것인지는 國語의 內的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정상적인 한자음 '장'에서 借字 表記의 讀音 '자'가 도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亦/여'와 같은 경우와 맞물려 우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 '亦'의 讀音 '이'에 대해서는 朝鮮 漢字音을 기준으로 시간의 선후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借字 表記의 讀音에 있어서 漢語의 近古音(또는 近代音)의 영향도 있으므로, 간단히 古音으로 처리하는 것이 能事가 아니기 때문이다. 漢語(中古音)에서 '亦'은 '譯/驛/易/液/掖/腋' 등과 同音이며, '(上古)ʎiak/djăk/zjăk/riak 〉 (中古)jĭɛk 〉 (近代) 〉i (現代)i'와 같은 音價의 推移를 겪었다. '易'과 마찬가지로 '亦'이 일찍부터 入聲韻과 陰聲韻이 공존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亦/이'에 대해서는 中古音 後期 이후의 漢字音에서 讀音의 基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漢語의 文獻에서 '亦'과 '易'가 通用되는 경우가 있다. '常勝之道曰柔 常不勝之道曰彊 二者亦知而人未之知(列子 黃帝)'의 張湛(장담)의 注에서 '亦當作易'라고 하였으므로, '亦/이'의 讀音에 대한 歷史性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吏讀 語彙 '箇滿/고만'의 '箇'의 讀音이 '고'인 것에 대해서도 역시 基層의 확인이 관건이다. 果攝의 歌哿箇韻(開1等)은 朝鮮 漢字音에서 韻母가 '-아'로 반영되는 것이 정칙이고 거의 예외가 없지만, '箇'는 특이하게 下向 副音이 첨가된 '개'로 반영되어 그 양상이 未詳이다. 아무

튼 中古의 歌哿箇韻은 이후 核母의 圓脣母音化를 겪게 되므로 '箇'의 讀音 '고'는 朝鮮 漢字音보다 後代의 基層으로 풀이하여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 音借字의 讀音과 朝鮮의 漢字音을 비교하였을 때 '戒(겨), 亦(여), 齊(져), 田(뎌), 丁(뎌), 內(ᄂᆞ), 犯(버)' 등과 같이 末音이 消去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朝鮮 漢字音을 기본으로 하면 音借 표기에서 末音을 消去한 것이 되겠지만, 古代國語의 漢字音이 朝鮮 漢字音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전제 아래에 서면 전혀 문제는 달라진다. '賜, 內' 등의 기존의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古代國語 漢字音은 高麗 時代에 들면서 音韻史에 의한 內的인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漢字音으로 교체되어 史的인 단절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音借字는 古代國語의 漢字音과 古代國語의 音節 構造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으므로, 朝鮮 漢字音을 준거로 한 回顧的 方法에만 기댈 수는 없는 것이다.

4.3. 展望 - 마무리를 겸하여

吏讀 文獻은 三國 時代부터 朝鮮 時代까지 통시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있다. 비록 동일한 吏讀字라고 하더라도 讀音과 機能에 변화가 있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漢字音의 변화에 의하여 동일한 機能이나 形態에 다른 吏讀字가 교체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口訣 文獻에서는 釋讀과 音讀을 경계로 이러한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吏讀에 있어서는 用字와 讀音에 대한 時代 區分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內的인 시각과 外的인 시각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口訣 및 吏讀의 音借字 讀音은 國語의 形態와 漢字音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國語의 內的인 形態 機能을 만족시키면

서, 漢字音에 의한 讀音의 적절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국어의 모든 형태가 당시의 漢字音으로 투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乖離를 해결하는 것은 國語史의 몫이 될 것이다. 借字 表記에서 音借字의 讀音은 원칙적으로 漢字音과 國語 形態 사이에 위치하는 中間的 存在이다. 그러므로 內的인 국어의 입장과 外的인 漢字音의 절충이 讀音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參考文獻

權仁瀚(2000ㄱ), 「이두의 독법과 한자음의 관계」, 제22회 공동연구회, 구결학회, 45-64.

權仁瀚(2000ㄴ), 「吏讀字 '味'의 독법과 한자음의 관계」,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207-224.

권인한(2002), 「고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한 고찰」,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출판부, 79-96.

金根洙(1980), 『鄕歌及韓國借字考』, 청록출판사.

金武林(1999), 「高麗 時代 口訣 漢字音의 硏究」, 『口訣硏究』 5, 구결학회, 75-108.

金武林(2003), 「漢字 '內'의 國語 音韻史的 考察」, 『國語學』 41, 국어학회, 123-143.

金武林(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완진(199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金裕範(1996), 「'尸'의 이중적 음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207-219.

南京蘭(2005), 『麗末鮮初 音讀 입겾(口訣)의 綜合的 硏究』, 경인문화사.

남경란(2008), 「音讀口訣 硏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硏究』 21, 구결학회, 99-137.

南豊鉉(1999),『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태학사.
南豊鉉(2000),『吏讀硏究』, 태학사.
南豊鉉(2005),「韓國 古代吏讀文의 文末語助辭 '之'에 대하여」,『口訣硏究』 15, 구결학회, 5-28.
南豊鉉(2008),「釋讀口訣에 쓰인 '支'의 形態와 機能에 대하여」,『口訣硏究』 20, 구결학회, 93-121.
南豊鉉(2009),『古代韓國語硏究』, 시간의물레.
朴盛鍾(1996),「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박사논문.
朴盛鍾(2007),「吏讀字 '內'의 讀法」,『口訣硏究』 19, 구결학회, 139-170.
朴盛鍾(2008),「古文書 吏讀 硏究의 回顧와 展望」,『口訣硏究』 21, 구결학회, 169-201.
朴喜淑(1984),「大明律直解의 吏讀硏究」, 명지대박사논문.
배대온(2003),『歷代이두사전』, 형설출판사.
백두현(2005),『석독구결의 문자 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安秉禧(1977),『中世國語 口訣의 硏究』, 일지사.
梁柱東(1965),『增訂 古歌硏究』, 일조각.
오세준(2006),「중국 上古音 학설로 본 고대국어 표기 '尸'의 音價」,『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329-349.
兪昌均(1996),『補訂 鄕歌批解』, 형설출판사.
李丞宰(1992),『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李勇(2008),「古代 및 中世 吏讀 硏究의 回顧와 展望」,『口訣硏究』 21, 구결학회, 139-168.
장세경(2001),『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출판부.
홍순탁(1974),『吏讀硏究』, 광문출판사.
小倉進平(1929),『鄕歌及び吏讀の硏究』, 京城帝國大學.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moorim@gwnu.ac.kr
접수일자: 2011. 01. 12
심사일자: 2011. 01. 15
게재결정: 2011. 01. 26

Reviews and prospects of the phonetic studies on Idu and Gugyeol

Kim, Moo-rim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prospect of the phonetic studies on Idu and Gugyeol. The characters of phonetic in Idu and Gugyeol have both sides, which are Chinese and Korean faces. Therefore to study on Idu and Gugyeol,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wo languages. But untill now the results of that studies are not enough for our expectation.

Key words: Gugyeol, Idu,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Seokdok, Eumdok